

재개발지역 주민 떠난 골목 '쓰레기 지옥'

불법투기 심각한 광주 중흥3구역 가보니

곳곳 깨진 창틀·유모차 등 널브러져 쓰레기 적치장 방불
한여름 악취 고통 속 과태료 부과도 어려워 구청 골머리

18일 오후 중흥3구역(북구 효동초등학교 일대)에는 적막이 감돌고 있었다.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주민 대부분의 삶을 옮겼다. 원주민들이 빠져나간 1~2층 주택·상가들은 벽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빈집을 뜻하는 'X'자가 그려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거나 열려져 있어 황량함을 더했다.

주민들이 빠져나간 중흥3구역 일대는 사람보다 쓰레기더미가 자주 보였다. 이사하면서 버려두고 간 옷장 물품들이다. 북구평생학습관 근처의 한 가정집으로 통하는 좁은 골목(너비 2.5m) 입구에는 이불·장판·쓰레기통·의자들이 뒤엉켜 높이 1.5m 작은 언덕을 이루고 있었다.

발걸음을 조금 더 옮기자 본격적으로 적치된 쓰레기더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식당 재료 도소매업체가 입주했던 조립식 건물 벽에는 세시(sash) 창틀과 모기장, 방범창이 위태롭게 쌓여있었다. '안전제일'이라고 쓰여진 테이프를 세시더미 주변에 둘러놓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는 있었지만 곧 무너져내릴 듯했다. 인근을 지나는 차량들은 혹시 쓰레기더미가 덮칠까봐 날씨가 거리를 두고 통행했다.

10여 가구가 모여 살던 한 2층 다세대주택 주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도로쪽 열린 창문 밑으로 깨진 창틀, 유모차, 전선 거울, 다 쓴 페인트통, 망가지 옷장 등이 길이 10m 이상 거리를 널브러져 있었다. 최근 비가 오지 않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음에도 쓰레기더미에서는 악취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는 거리에서 본 쓰레기더미만 10여곳이었다. 좁은 골목길까지 합치면 중흥3구역 전체가 쓰레기 적

치장을 방불케하고 있었다. 이주대상 세대로 편입되지 않은 한 식당 주인은 "악취 뿐 아니라 언제 쓰레기더미가 무너져 차량을 덮칠줄 몰라 손님들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다"며 "이곳이 쓰레기장으로 변하다시피 하니 타 지역 주민들이 찾아와 불법투기하는 일도 잦다"고 말했다. 중흥3구역의 쓰레기더미는 북구청에게도 골칫거리다. 원칙적으로 북구청이 쓰레기를 치울 의무는 없다. 불법투기자를 찾



버려진 양심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광주 북구 중흥3구역에 주민들이 이주하며 무단으로 버리고 간 생활 폐기물 등이 쌓여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아내 과태료만 부과하면 된다. 하지만 주민들이 떠나버려 불법 투기자를 일일이 찾아내기가 어렵고, 워낙 쓰레기량이 많다보니 과태료 부과는 언감생심이다.

민원이 빗발치자 북구청 청소행정과 직원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중흥3구역 일대 쓰레기를 치웠다. 한 차례 나갈 때마다 인원 100여명, 11t·5t 트럭 각 1대, 2.5t 트럭 3대, 1t 트럭 5대 등 동원할 수 있는 인력·장비를 모두 활용했지만 역부족이라고 한다.

아직 이주대상 1325세대 중 300여세대가 토지보상금 문제로 남아 있어 앞으로 쓰레기 방치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흥3구역뿐 아니라 우산동·임동 등 북

구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구역에서도 불법 쓰레기 투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주민 계도를 진행하고 조합측과도 협의해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불법 투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대형폐기물은 관할 관청에 신고후 처리하거나 생활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흥3구역은 13만 2269㎡ 부지에 17개동(지하2층~지상25층) 규모 아파트(1556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오는 8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시험지 유출 전날 만난 학운위원장·행정실장

카페서 은밀한 '쪽지 대화' 왜?

경찰 CCTV 확보해추궁하자 둘 모두 "기억 안난다" 잡아떼
경찰, 학생 참고인 조사키로

단 둘이 카페에 마주앉아 30여분간 대화를 했는데도 그들은 왜 필담까지 나왔을까.

'광주 고3 시험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서부경찰이 광주시 남구 노대동의 한 카페에서 확보한 CCTV 영상에 담긴 장면을 두고 제기되는 의문이다.

영상 속 인물은 병원장이자 3학년 아들을 둔 학교 운영위원장 A(여·51)씨와 같은 학교 행정실장 B(57)씨. 녹화 시점은 지난 1일 오후 5시께.

이날은 행정실장이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하기 하루 전이다. 둘은 30분 가량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영상을 분석하던 경찰의 시선을 확 끌었던 장면은 테이블에 난데없이 쪽지가 등장한 순간이다.

A씨가 먼저 손바닥만한 쪽지를 꺼내고 무언가 열심히 적은 뒤 맞은 편에 있던 B씨에게 건넸다. 건네 받은 쪽지를 한참 보던 B씨도 별도의 종이에 또 무언가를 메모하고선 이를 다시 A씨에게 건넸다고 한다.

경찰은 초기 확보한 이 영상 속 필담 장면이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전날 만남이라 부탁하는 쪽은 '○○과목 시험지를 구해달라', 들어주는 쪽은 '××를 대가로 달라'는 식의 원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고,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제시하면 입을 열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에 자수한 이들은 둘 모두 경찰이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고 버렸다. 매 조사마다 변호사 입회 하에 '종이에 뭔가 적긴 한 것 같은데 잘 기

역나지 않는다'며 번번이 잡아떼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행정실장이 학운위원장에 게 지인의 취업을 청탁하는 내용을 적은 것 아니냐', '학운위원장이 원하는 시험지 과목을 적은 것 아니냐' 등의 의견이 나왔지만 둘 모두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시험지 유출 대가로 학운위원장이 지인 취업을 약속했다면 단순히 이름만 말해줘도 충분하고, 시험 과목의 경우 수사 초기와 달리 일부 과목이 아닌 전과목 유출로 판명났기 때문이다. 서로 불신, 특정 내용의 경우 녹음되면 한 쪽이 크게 곤란해질까봐 쪽지를 나누는 것 아니냐, 범행 발각 경우를 대비해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등 갖가지 해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여전히 행정실장의 범행 동기가 약하다. 그 쪽지가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입을 열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A씨가 유출한 시험지를 받아 집 컴퓨터로 직접 편집해 아들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경찰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병원일에 바쁜 A씨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9과목에 달하는 시험지를 홀로 편집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다.

한편 학교 측은 '학교 측 권고대로 아들을 자퇴시키겠다'는 A씨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시험을 본 아들이 사전에 유출된 시험지라는 것을 알았을 경우, 자퇴 처리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염려한 조치로 보인다. 경찰은 학생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광주시의회에서는 '고3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해 광주교육을 책임지는 장희국 광주시교육감의 직접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원룸 침입 성폭행 시도 불법체류 러시아인 체포

진도경찰, 구속영장 신청키로

18일 진도경찰은 여성 혼자 있는 원룸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강간 미수 등)로 러시아 국적 불법체류자 A(35)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30분경 진도군 진도읍 한 원룸에서 주먹으로 B(여·42)씨의 얼굴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속소로 귀가하던 중 문이 열려 있던 B씨의 원룸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에게 폭행 당한 B씨는 잠시의 식을 잃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피신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관광 비자로 입국해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 신분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소주 3병을 마시고 홀로 돌아가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또...폭염 속 어린이집 차량 방치 4세 여아 숨져

경기 동두천서...경찰 수사

폭염 속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방치된 4살 어린이가 숨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18일 경기 동두천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경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차 안에서 A(여·4)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다른 원생들과 통원 차량을 타고 어린이집에 왔지만, 미처 차에서 내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어린이집 교사가 부모에게 "아이가 왜 등원하지 않았느냐"며 연락을 했고, "정상 등원했다"는 부모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A양이 없어진 걸 안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차 안에서 A양을 발견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어린이의 사인을 조사하는 한편,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별 요구 연예인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돈 뜯은 40대 징역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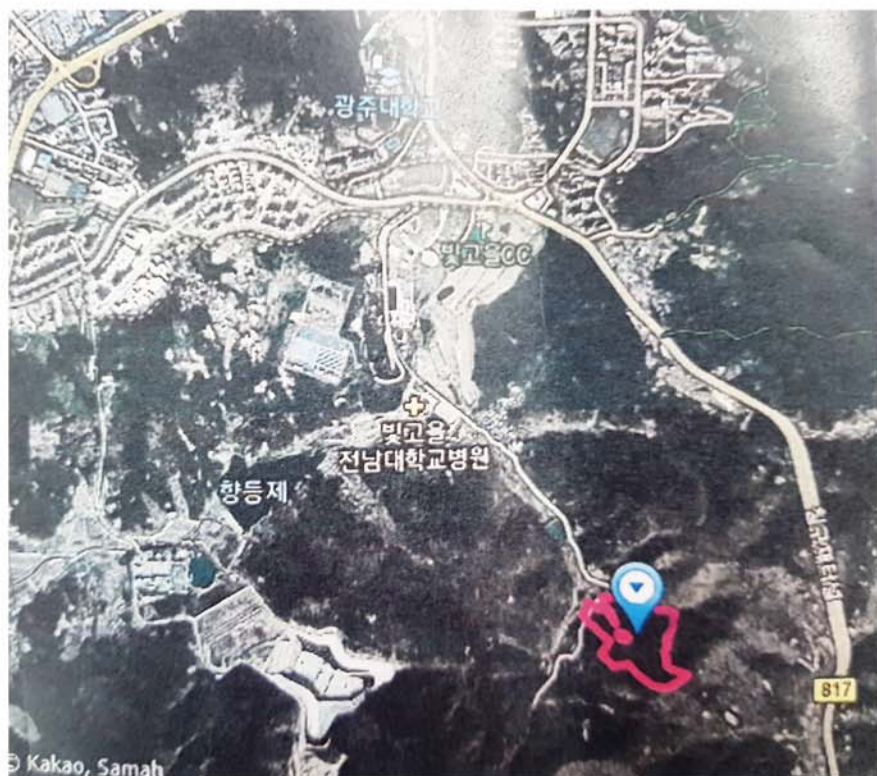
○...법원이 이별을 요구한 연예인 여자친구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방승인 김정민(여·29)씨를 상대로 공갈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태영(49)씨에

게 징역 1년에 징벌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는 것.

○...손씨는 지난 2013년 7월 김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억여원을 받아냈는데, 박 판사는 손씨에 대해 "피해규모 자체가 작지 않고,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고 지적. /연합뉴스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싸게 팝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20만원에 매매 될 (산64-21번지, 맹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